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연예계 SNS서 소신발언 봇물 유아인·문정희·공효진 등 게재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스타들도 각자 SNS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우 유아인은 인스타그램에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이라는 글과 함께 탄핵 결정 방송 화면을 찍어 올렸다.

문정희는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불법 헌법 수호 대한민국.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모두 수고하셨다.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다. 짜릿한 오늘”이라며 환영했다.

공효진은 “이 멀리에서도”라며 대만에서 스마트폰으로 탄핵 인용 뉴스를 보는 사진을 올렸고, 김효진 역시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만장일치. 눈물 내네요”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윤균상은 인스타그램에 “불이 온다면 불이 왔구나 따뜻한 불이”라고, 윤승하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적었다. 임주환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의 전문을 써서 올렸다.

이기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 오래 걸렸다”라며 “#출구 #빛을따라왔다 #어둠은빛을이길수없다 #국민이주인이다 #국민의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다시한번자랑스런나라 #탄핵” 등의 글을 적었다.

손수현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비상식과의 싸움이 끝났고 드디어 이겼다”고, 김지우도 “자 이제 밝힐 건 밝힙시다”고 썼다. 김의성은 “체크아웃은 통상 12시까지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우회적인 글을 올렸다.

김수로 역시 인스타그램에 “이제 더 열심히 일하자”고 밝혔고, 개그맨 김재우는 “오늘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글과 함께 태극기 사진을 게재했다.

이밖에 방송인 김나영과 안선영도 현재 선고 당시 텔레비전 화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고, 배우 전우희도 “2017.3.10”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대립군’ ‘택시운전사’ ‘1987’ 등 줄이어 개봉 예정 박종철 고문 사건 등 다뤄...현 시국 맞물려 목직한 울림

‘광해, 왕이 된 남자’(2012)에 이어 ‘대립군’을 제작한 원동연 리얼라이즈퍼처스 대표는 “임진왜란 당시 지금이나 나라를 지킨 사람은 결국 민초들”이라며 “특별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기 보다 가족들이 더욱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과 광해가 성군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자신들을 희생한 대립군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특파원을 태우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운전했던 실제 택시운전사의 이야기를 다룬 ‘택시운전사’는 울여를 개봉한다. 열한 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며 사는 평범한 택시운전사 만섭(송강호)은 통급 전에 광주를 다녀오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운다.

그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피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택시비를 받아 밀린 월세를 갚겠다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광주

로 향하지만, 광주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는다. 송강호가 ‘변호인’(2013)에 이어 또다시 사회성을 지닌 영화의 주연을 맡았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은 연말 극장가를 달굴 예정이다.

이 작품의 배급사인 CJ E&M 관계자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6월 항쟁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슬프고 뜨거웠던 1987년 그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소개했다.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2013)의 정준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윤석, 하정우, 강동원이 캐스팅된 상태다.

4월 말 간판을 다는 ‘특별시민’은 대선 정국과 맞물려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변종구(최민식)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치열한 선거전 이야기다.

쇼박스 관계자는 “선거판의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를 조망함으로써 걸로 보이는 정치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애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아임 소리장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1	00 다크 공감(재)	00 월화드라마 <안벽한 아내> (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전망대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진실 55 명인(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6 (재)	00 2시,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 55 감성애니 하루 2 (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리 은수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안벽한 아내>	0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미니시리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결정드라마 <리셀 웨폰>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초인가족 2017
12	30 101세의 프로젝트(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프로야구 선수 골프 in GUAM 결승전>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EBS 스페셜 프로젝트 - 新 통과의례 <자연의 색 뉴캐슬도니아>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자연을 색 뉴캐슬도니아>	10:30 한국기행(재)	15:00 오솔 상사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6:0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새우살 고추장찌개와 청포묵 김치무침>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은빛 실월의 전설 중국 내이명구 -칭기즈칸의 후에 부라트스크>
06:2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잭	21:30 한국기행 <남도에도 가다 1부 -통영, 영광 그리고 나>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2:00 EBS 정오 뉴스	15:35 모피와 친구들	21:50 EBS 다크 프라임 <남도에 가다 1부 -통영, 영광 그리고 나>
07:30 로보카 폴리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온다>	15:45 코코몽 3	2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 新 통과의례
07:45 출동! 슈퍼윙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3:35 EBS 스페셜 프로젝트 - 부시 고시
08:00 댕동댕 유치원 1~2	12:45 세계문화기행 <문학의 길을 걷다(재)>	16:45 댕동댕 유치원 1~2(재)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30 꼬마버스 타요	13:4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7:15 엄마 까투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9:00 강철소방대 피아로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3일(음 2월 16일 己亥)

子	48년생 뒤늦게 허점을 보게 되리라. 60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추후도 변경하려 들지 마라. 72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84년생 교제해야만 진부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6, 62	午	42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54년생 원전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66년생 과신하지 않는다면 차질은 없다. 78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자. 90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09
丑	49년생 결과 속이 팍 찬 상태이니 지금 바로 수확을 하려도 무리가 없을 것이니라. 61년생 돈이 관건이 되리라. 73년생 치우다 보면 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85년생 어렵자서 짐작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75, 59	未	43년생 무형의 가치를 파악하자. 55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만 한다. 67년생 불안전했던 원인 요소가 해소될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79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이어야다. 91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6, 50
寅	50년생 마뚝거리지 말 것이며,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62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백번 낫다. 74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86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0, 07	申	44년생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뒤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56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68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80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9, 12
卯	51년생 당시의 현장에서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만 한다. 63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75년생 심기가 불편한 판도가 역력히 보이느니라. 87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너야 할 때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9, 41	酉	45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되겠다. 57년생 오매 불망으로 학수고대 해왔던 비의 성취를 목전에 두고 있다. 69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니라. 81년생 허비가 쌍곡선을 그리며 질주하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30, 13
辰	52년생 기쁨 속에 반드시 함정이 숨어 있을 것이니 경계 대상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야만 안전하다. 64년생 불만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76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88년생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37, 48	戌	46년생 지켜보고 싶다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58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70년생 기교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82년생 기준에 있어 왔던 것이니 다루기가 용이하겠다. 행운의 숫자 : 64, 56
巳	53년생 부실한 국면에 대해서 주의한다면 외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65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봐라 한다. 77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89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어라. 행운의 숫자 : 38, 19	亥	47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59년생 액운이 보이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71년생 천우신조로 대걸하는 운세이다. 83년생 머지않아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3, 8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